

보도

등책위, 기존 공간 두고 ‘평행선’

〈2017 마지막〉

안나연 기자 na@khu.ac.kr

【서울】 2017학년도 마지막으로 열린 5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가 그동안 의 과제를 2018학년도에 당선될 학생대표와 협의하기로 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9일 열린 5차 등책위에서 결정되지 못한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한제’, ‘외국인 유학생 지원확대’ 그리고 ‘기존 공간 사용방안’이다.

이번 등책위에서 총학생회(총학)는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내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권고한 인상을 섹식에 준하여 책정된다. 이는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을 두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1.5%까지 인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등책위에서 총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총학의 임기가 열

마 남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며 확답을 피했다. 총학은 내년 총학과 대학본부가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한제’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확대’ 문제는 지난 8월 4일에 열린 4차 등책위에서도 미뤄진 바 있다.

기존 공간 활용 방안 확답 불가

지난 8월 4일 열린 4차 등책위에서도 총학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한제’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총학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나중의 일”이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5차 등책위에서 총학은 학생들이 바라는 공간조정 내용이 담긴 ‘기존 공간 활용요구서’를 제출했다. 문과대학과 정경

대학, 자율전공학과 등에서 요구하는 강의실 추가 지정과 동아리, 소모임 공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학본부 측은 요구 반영 여부와 시기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아직 사용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단과대학 공간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 단과대학 공간소위원회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건물 신축에 따라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가 주요 안건인 만큼 등책위에서 나온 내용을 공간관리위원회가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재정에 산처 박성화 예산팀장은 “신축 건물로의 이전에 대한 문제니만큼 대학본부 측에서도 단과대학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차 등책위에서도 총학은 기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공간을 활용할 방식에 대해 단과대학 별로 작성한 계획안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 총학은 “이미 계획안이 취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할 시기”라고 말했지만, 대학본부는 “계획안을 먼저 제 공받길 원한다”며 논의를 미룬 적이 있다.

회의록 공개 않는 총학, 소통은 어디에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국제】 국제캠퍼스(국제캠) 제49대 총학생회(총학)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회의록이 올라 오지 않고 있다.

중운위는 총학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공유,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총학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이며 확운위는 과 단위 이상의 학생 자치조직이 참여하여 총학과 대학의 핵심 사업이나 사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회의다. 확운위 안건은 중운위 안건 상정 의결을 거쳐서 상정한다. 올해 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서 진행던 회의를 제외하면 중운위는 8차~15차까지, 확운위는 2차~4차까지 진행됐다. 학교 운영 및 학생 자치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인 만큼 학생회 회원인 학생은 회의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학생회칙 7장 62조 2항에도 ‘본 회(총학생회)의 운영, 의결기구의 회의 결과와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캠 총학이 운영하는 채널은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로 나뉜다. 이 중 네이버 카페 회의록 게시판에는 중운위 10차부터 12차까지의 회의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확운위 2차, 3차 회의록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4차 확운위 결과만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됐다. 총학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은 “중운위 회의록을 작성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문제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다. 확운위 회의록에 대해서는 “2차, 3차 회의록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학과 회장에게 전달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기사(국제캠 총학, 지금까지 회의록 공개 0건-예산안 공고 2달 치 뿐/대학주보 온라인, 2015.07.28.)를 통해 총학의 회의록 공개 의무 불이행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총학 역시 ‘컴퓨터 문제’를 이유로 들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정보 공개가 포털사이트 카페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총학 카페에서 중운위, 확운위 회의록 게시글은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는 카페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 네이버에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검색하면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홈페이지만이 검색된다. 국제캠 총학 카페를 찾기 위해선 ‘카페’ 카테고리를 거쳐야 하는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구글 역시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울캠 총학 홈페이지만을 결과로 표시했다. 서울캠 총학은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입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중운위와 확운위 회의록을 빠짐없이 게재하고 있었다.

정태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회는 학생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자들이 있는 곳이다”며 “학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 대표 기구가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하여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 자치라는 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 5%↓, 가스 12%↓, 수도 16%↓
2012년→2016년 에너지 소비량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서울】 우리신문은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총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살펴 봤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 사용량은 5%, ▲도시가스 사용량은 12.3%, ▲상하수도 사용량은 16.9% 가량 감소했다.

2011년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내림에 따라 우리학교가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적 있다.

그 후로 우리학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서울시와 ‘그린캠퍼스 협의회 MOU’를 체결했다.

그린캠퍼스 협약에 의거해 서울캠은 2012년 기준 2017년까지 면적 당 총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여야 한다.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량에서는 10% 감량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서울캠 관리팀 김태우 계장은 “최근 기숙사가 준공되면서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며 “분묘가 늘어났으니 목표치에 더 가까워졌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에너지 절약 위한 설비개선
구성원 전체 관심도 절실

우리학교는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유치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교체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고,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 형광등에서 LED로의 교체를 진행했으며 절수기를 설치해 상하수도 사용량을 줄이려 노력했다. 또한, 최근 신축된 단과대학동엔 태양광 전력 수급 시스템이, 행정 기숙사에 지열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포함 서울의 34개 회원대학으로 구성된 ‘서울 그린캠퍼스 협의회’는 에너지 다소비기관이었던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협의회다. 이는 서울시가 주관하며, 회원대학간 정보교환, 우수성공 사례 공유 및 전파, 전담 조직간 인적 교류를 통해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캠퍼스 협의회’ 가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

극 노력하겠다는 우리학교의 선언이었다.

서울 그린캠퍼스 협의회 회원 대학 중 하나인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도 눈에 띄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현황을 보였다. 한양대학교는 2012년에 대비해 2016년까지 ▲전력 사용량 8.9% ▲도시가스 사용량 11.3% ▲상하수도 사용량 5.1% 가량을 감축했다.

지난 2013년 서울 그린캠퍼스 협의회 출범 이후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는 그 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서울시 에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사업 및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00~3,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2014년엔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경희대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만들어 청운관 1층, 2층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 했다.

2015년엔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활동,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자취방 두 곳을 선정해 단열 개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 해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청운관 지하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했으며, 이 밖에 ‘에너지 절약 및 소비’ 관련 기획 강의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됐다.

2014년 당시 추진위 위원장이었으며, 현재 그린캠퍼스 사업을 총괄하는 후마 실천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해 교수는 “지원금으로는 원칙상 학교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 수급 방식을 바꾼다거나 할 수 없다”며 “매 학기 교육을 진행하거나, 학교의 대응자금으로 건물 특정 층을 대상으로 LED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2015년처럼 몇몇 인근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상징적인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제안하거나 캠페인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서 아쉽다”며 “지원금 의존을 넘어서서 LED로의 전면 교체, 태양광 사용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루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한 학교 전체적인 관심이 잇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리팀 김 계장은 에너지 사용량 10% 감량이라는 목표치 달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때까지 해 오던 것들을 연장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새로운 사업 유치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착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igepe.or.kr

〔2015년 폭력예방교육 슬로건 수상작〕
성희롱 예방 주선

〔서울캠퍼스〕성평등상담실 02-961-0246 (학생회관 102호)
〔국제캠퍼스〕미래혁신원 학생지원팀 031-201-2806 (학생회관 218호)

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용기있게 대응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igepe.or.kr

〔2015년 폭력예방교육 슬로건 수상작〕
성희롱 예방 주선

〔서울캠퍼스〕성평등상담실 02-961-0246 (학생회관 102호)
〔국제캠퍼스〕미래혁신원 학생지원팀 031-201-2806 (학생회관 218호)